

서울 YMCA, 중고생 1천6백명 조사

서울시내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사회제도, 어른들의 몰이해, 입시경쟁이 자살을 생각해 하는 직·간접 요인으로 지적됐다.

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이 지난 7~8월 서울시내 남녀중고생 1천6백61명을 대상으로 '청소년 자살'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, 73%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0%는 항상 또는 자주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자살기도나 자해행위를

(%), 본인(25.1%), 모든 사람(16.7%), 부모(12%) 등의 순으로 꼽았다.

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학(32.8%), 성적(27.3%), 진로(26.3%) 등 입시문제가 압도적이었고 주로 친구(43.8%)와 고민을 나누지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걱정하는 경우(31%)도 많았다.

인생에 대해서 즐겁고 희망적이다(30.5%)는 생각보다는 슬픔이나 고민이 더 많다(44.7%)는 쪽이 높았다.

88.90.9.27

청소년 73% 자살충동 경험

가장 큰고민 진학등 입시문제 꼽아

'성적비관 자살' 64%가 공감 표시

한 경우도 11%에 이르렀다.

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된다(31%)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(52.9%)는 반응이었고 특히 성적비관 자살학생에 대해서는 63.9%가 공감을 표시했다.

청소년들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와 어른들의 문제, 학교교육, 부모(64%) 등 외부환경이 본인의 자각부족(27%)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자살에 대한 책임 대상은 사회제도(36.6

가정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'부모님이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'는 점이었고 학교생활에서는 '선생님이나 선배의 강요와 폭력'을 불만스러워했다.

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삶의 모습은 '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'(40%)이고 '친구와 같이 있을 때, 스포츠나 취미에 열중할 때'(38%)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조사됐다.